

[전체공지]

※ 교황님 기도 지향 (보편 지향: 대양의 보호) 정치인, 과학자, 경제인들이 바다와 대양의 보호를 위해 함께 노력하도록 기도합니다.

[잭슨빌]

- 오늘 친교후에 사목회가 있습니다.

[게인즈빌]

- 오늘 미사후 사목회가 있습니다.

<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>

| 공동체 | 주일봉헌금 | 교 무 금 | 건축헌금 | 기타 | 총 계 |
|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|----|---------|
| 게인즈빌 | \$162 | - | - | - | \$162 |
| 잭슨빌 | \$241 | \$1,240 | - | - | \$1,481 |

**聖 최경환 프란치스코 한인 성당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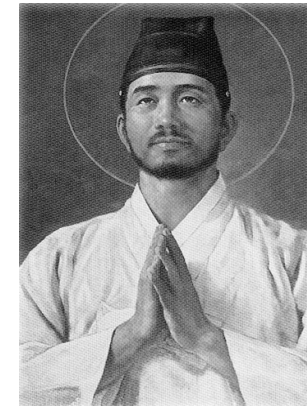
St. Francis Choe Korean Catholic Mission

주임신부 김영수 스테파노 (904) 525-4809

성당 (904) 573-1833

잭슨빌 성당 St. Francis Choe Catholic Mission, 8051 Rampart Rd. Jacksonville, FL 32244

게인즈빌공동체 St. Patrick Parish, 550 NE 16th Ave. Gainesville, FL 32601



聖 최경환(崔京煥) 프란치스코(1805-1839)

| 잭슨빌 한인 성당 | | 게인즈빌 한인 가톨릭 공동체 |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주일 미사 | 일요일 오전 10 시 30 분 | 특전 미사 | 토요일 오후 7 시 |
| 평일 미사 | 매주 수요일 오후 8 시, 첫째 금요일 성체현시 및 미사 | 평일 미사 | 둘째, 넷째 금요일 오후 7시30 분 성가대 연습실 |
| 성령 기도 | 매주 금요일 오후 8 시 | 성령 기도 | 매주 토요일 오전 9 시 30 분 |
| 성프란치 스코 기도회 | 매주 (목) 오전 11 시 | 레지오 | - |
| 성시간 | 첫째 주 금요일 미사 후 | 주일학교 | 매주 토요일 미사 후 |
| 예비자 교리 | 매주 주일 미사 후 | 예비자 교리 | 매주 토요일 미사 후 |
| 사목회의 | 첫째 주 주일미사후 | 사목회의 | 첫째 주 특전 미사 후 |
| 사목회장 | 송재민 하상바로로 (904) 226-7191 | 사목회장 | 천창준 레오 (352) 727-0452 |

www.stfccm.org

<https://www.facebook.com/St.FrancisChoe>

오늘의 묵상

서양의 한 인류학자가 남아프리카 부족의 아이들에게 과자 상자를 보여 주며 달리기 경주를 시켜 보았습니다. 아이들은 “우분투”라고 말하며 함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. 백인 학자가 의아해하며 왜 경쟁하지 않느냐고 묻자 아이들은 “다른 아이들이 슬퍼하는데 어찌 나만 행복할 수 있나요?”라고 말하였습니다. “우분투”란 아프리카 코사어로 ‘네가 있어 내가 있다.’ 또는 ‘함께 있어 내가 있다.’라는 뜻입니다. 인간은 이웃과 함께해야만 행복해질 수 있게 창조되었습니다. 이웃과 경쟁하는 것은 독약을 마시며 건강해지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. 하느님께서 세상에 내려오신 이유는, 인간이 행복하지 않으면 당신도 행복할 수 없으시기 때문이었습니다. 아기가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데 혼자 행복할 수 있는 어머니는 없습니다. 오늘 복음은 ‘회개’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. 회개란 무엇이 참행복인지 아는 것입니다. 처음에 작은아들은 자신을 즐겁게 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여겼습니다. 그러나 그것이 고통임을 깨닫고 아버지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곧 자신의 행복임을 알게 되었습니다. 반면, 큰아들은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도 행복하지 못하였습니다. 아직은 아버지의 행복과 자신의 행복이 일치할 이루지 못하였던 것입니다. 내가 죄를 이겨 행복할 때 아버지도 행복하십니다. 죄를 짓는 사람이 부러우면 아직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. 죄는 자신과 이웃을 아프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.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곧 나의 행복임을 아는 사람이 회개한 사람입니다.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도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사람이 회개한 사람입니다. 이런 사람이 참으로 하느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. (전삼용 요셉 신부)

< 8. 찬미하여라 >



연중 제 24 주일

[제 1 독서] 탈출기 32,7-11. 13-14

<주님께서는 내리겠다고 하신 재앙을 거두셨다.>

[화답송] 시편 51(50),3-4.12-13.17 과 19 (◎루카 15,18)

◎일어나 아버지께 가리라.

[제 2 독서] 티모테오 1 서 1,12-17

<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.>

[복음환호송]

◎알렐루야.

○하느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네.

◎알렐루야.

[복음] 루카 15,1-32

<하늘에서는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.>

<전례 봉사자>

| 공동체 | | 해 설 | 제 1 독서 | 제 2 독서 | 봉 헌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이 번 주 | 게인즈빌 (9/14) | 고승희 엘리사벳 | 천희제 레아 | 천송희 스텔라 | - |
| | 잭슨빌 (9/15) | 윤미임 데레사 | 손활란 안나 | 최차숙 마리아 | 함동진 안드레아 함두순 베로니카 |
| 다 음 주 | 게인즈빌 (9/21) | 임윤미 플로라 | 백현 가브리엘 | 백준 빈첸시오 | - |
| | 잭슨빌 (9/22) | 백경윤 아네스 | 이상미 미리암 | 서정원 헬레나 | 조종래 미카엘 조의단 아네스 |

<미사 성가>

| 공동체 | 입 당 | 봉 헌 | 성 체 | 파 건 |
|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
| 게인즈빌 | 434 | 556 | 189 | 507 |
| 잭슨빌 | 35 | 212 | 164 | 4 |